

지 회 전 화 번 호
 서울 (02) 743-1937 부산 (051) 506-3599
 경기 (0333) 666-6091 강원 (0361) 481-3876
 충북 (0441) 43-1904 충남 (042) 271-7818
 전북 (0671) 625-2302 전남 (062) 367-1161
 경북 (053) 422-7867 경남 (0551) 42-6573
 제주 (064) 22-6907 인천 (032) 762-7797

양 봉 협 회 보

198호
 1996년 9월 25일
 월간 <비매품>

발행인:정해운/ 편집인:김충겸/ 인쇄인:양광호/ 발행처:(사)한국양봉협회 110-126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가 173 삼보빌딩 301호 전화(02)763-1372·5903·FAX:764-1297

북한산 로알제리 읍들이 반입금지

반입자동승인때 승인난것 올해에

89년 남북간 농산물교역이 시작된후 금년 5월까지 북한산 농산물 국내 총 반입량은 37,232톤(3천7백64만9천 달러).

이중에 로알제리는 37.5톤의 물량에 3백53만5천 달러 어치나 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산 농림수산물 반출입실적(통관기준) 자료에 따르면 1천톤 이상되는 품목순으로 감자 20,682톤(6백29만1천 달러), 한약재 6,790톤(2천41만6천 달러), 땅콩 2,183톤(1백84만4천 달러), 쌀 1,980톤(1백7만8천 달러), 들깨 1,554톤(1백59만5천 달러) 등이지만 로알제리는 물량면에 작은 측에 들어도 금액상으로 치면 한약재, 감자에 이어 세번째 자리를 점하고 있다. (도표 참조)

로알제리 최초반입 연도인 '93년 이후 지난해까지 3년간 최소 1.5톤, 최대 14톤이내의 물량 반입이었는데, 올해들어 반입된 18톤은 가히 기록적이라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국내 양봉산업의 로알제리 생산은 연간 20톤내외로 추산되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국내 로알제리 생산입지는 설자리를 잃게 되는 도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에 18톤의 반입물량은 금년 3월5일 반입제한품목으로 고시(본보 3월호 관계기사 참조)되기 직전에 이미 반입승인 받은 것(반입승인일로부터 1년 내 통관반입 가능)이 이연(移延)통관된 것으로 파악되어 제도상 허점이 아닌 것으로 밝혀 지는 했다.

로알제리 뿐만 아니라 천연꿀

도 시장개방 이후 이와 똑같은 양상으로 전개될 때, 내국간 거래로 관세 한푼 없이 국내로 붓물터지듯 하면 양허세율 262%의 고통관세 보호막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이를 대비해 본협회는 뒤늦게 작년이 문제를 우리 업계 최대 현안으로 다뤄 왔고 마침내 올 3월 5일 자동반입승인품목인 것을 반입제한승인품목으로 변경고 시하기에 이르렀는데 이 시점 전후의 상황 전개가 업자들의 발빠른 반입공세로 보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한약재·호두·땅콩 등 북한산 농산물 반입도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인데 지난 9월2일자 농수축산 전문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값싼 중국산이나 제3국의 농림수산물을 북한산으로 위장 반입하는 사례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관련업계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남북한이 이같은 위장반입을 막기 위해 각각 시행하고 있는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원산지증명제 강화 등 남북한간에 협조체제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부 수입업자들이 내용이 기재되지 않거나 컴퓨터그래픽으로 위조된 산지증명서를 북한 무역상들과 중국의 무역 중개인으로부터 구입, 중국산이나 제3국의 값싼 농산물에 이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북한산인 것처럼 둔갑시켜 국내

에 반입, 고가에 판매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는 남북간의 교역이 내국간 거래로 규정돼 있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입금지품목, 쿼터품목에 해당되지 않아 수입이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국내서 높은 시판가라 큰 이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세관도 이같은 문제점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지책은 없는 실정이다. 농림수산물은 특성상 그 자체로 산지확인이 불가능해 일정한 서류만 구비되면 대부분 통관되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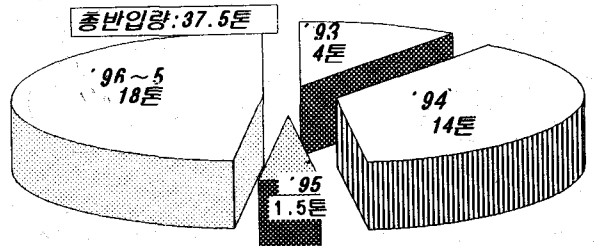
최근 통일원과 관세청은 80% 이상이 위장 반입되는 것으로 알려진 한약재를 비롯해 쌀·호두 등 제한승인품목은 반드시 북한당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남북직항로로 수송이 이뤄지는 것 등을 원칙으로 하는 강화책을 마련했지만 위장반입을 완전히 차단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농촌경제연구원 최세균 연구위원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 식량난의 경우 남한이 필요로 하는 잡곡류·한약재 등을 북한이 수출하고 그 대금으로 곡물을 수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며 북한에 대해 이같은 협조가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점을 이해시키는 것이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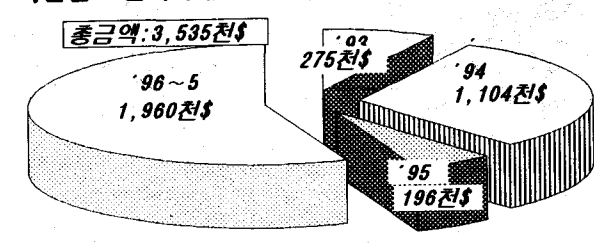
천연꿀 96MMA 물량 중국산 유채꿀 낙찰

올해 예정된 천연꿀 시장점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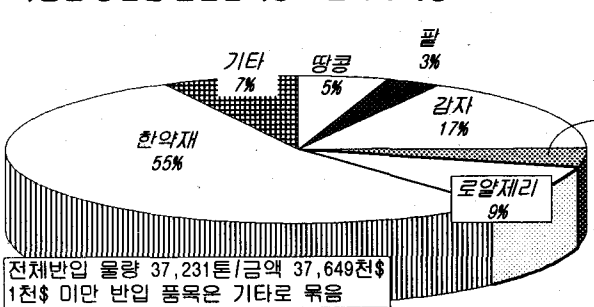
북한산 로알제리 반입물량



북한산 로알제리 반입금액



북한산 농산물 반입금액중 로알제리 비중



전체반입 물량 37,231톤/금액 37,649천\$
 1천\$ 미만 반입 품목은 기타로 묶음

물량(MMA) 229톤 수입이 국제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중국산 유채꿀로 낙찰, 오는 11월 15일과 11월 30일 1·2차로 나눠 국내에 도착된다. (본보 7월호 관계기사 참조)

천연꿀 국영무역을 관장한 축협중앙회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의 천연꿀 MMA물량 도입조건 제시에 따른 국제공개경쟁입찰에서 응찰 국가 중 가장 낮은 가격의 중국산 유채꿀이 톤당 1,750 달러선 가격으로 낙찰되었다고 한다. (작년 수입된 것은 미국산 크로바꿀 210톤에 CFR US\$ 3,87,450. 톤당 1,845\$였다) 그러면 달러당 환율 800원으로 친다면 환화로 관세부과

전 kg당 가격은 1,400원, 드럼당 403,200원 정도.

이번 응찰된 천연꿀의 국제시세는 작년에 비해 큰 폭으로 오른 상황이었다면서 작년 수입한 210톤의 물량을 국내 내수용 공매처리가 원만치 못했던 경험에 비춰 이번에 들여올 유채꿀의 수요 반응도는 어떨지 염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본협회는 이와 관련, MMA물량의 국내 수급시 양봉농가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식품가공용 원료 수급을 위한 실수요조사를 실시, 8개 업체에서 구매를 신청한 250톤의 물량을 축협중앙회에 추천 이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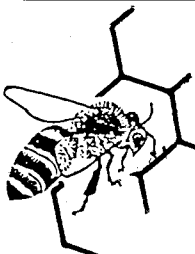
새로운 규격꿀병 발매안내

그동안 저희 제품을 애용해주신 고객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독창적이고 견고한 새로운 규격꿀병을 생산·공급하게 됨을 널리 알려드립니다.

현재 전국 판매망을 통해 최고의 품질로서 고객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으며 앞으로도 제2의 창업정신으로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최근 시중에는 본사제품과 유사한 사제품이 유통되고 있어 혼란이 야기되므로 두산제품인지 꼭 확인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꿀병 생산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품규격 / BOX당 수량

구분	3kg	2.4kg	1.8kg	1.2kg	0.6kg	0.3kg
수량	9	12	12	15	15	48
구분	신2.4kg	신1.2kg	신0.6kg	신신1.2kg	50g	
수량	9	16	32	16	100	



두산유리 규격꿀병 총판

(주)대한양봉산업

☎ 156-035 서울시 동작구 상도5동 242-2
 ☎ 817-8127 FAX:817-8128